



독일의 초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

이진모

한양대학교수 서양사

1871년 2월 4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한 가난한 재단사의 아홉 자녀 가운데 일곱 번째로 태어난 프리드리히 에버트(1871~1925)는 초등학교를 마친 뒤 안장제조공 교육을 받았으며 뒤이 약 2년 동안 방랑생활을 한다. 에버트가 방랑생활을 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고도의 산업화

를 겪고 있던 때이다. 당시 열악한 사회환경과 실업에 대한 두려움은 다수 노동자들을 자신에게 현실생활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노동조합을 필두로 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단체로 모여들게 하고 있었다.

독일 정부는 사회주의 탄압법(1878~1890)을 통해 불길처럼 번져가던 노동운동을 억압하려 하였지만, 이러한 반동적 조치는 노동자들

에버트는 사회주의 탄압법 폐지이후 독일노동운동 지도부의 전형으로 일컬어진다. 노동운동에 대한 제도적이고 감압적인 탄압이 사라진 이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노동운동 지도층은 결코 비투쟁적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의 의식과 상호연대감을 더욱 강화시켜서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운동은 계속 발전하였다. 훗날 사민당 당수이자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된 에버트가 노동운동과 인연을 맺게 되고 노동운동가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전반적 배경 아래에서였다.

자신이 습득한 직업기술을 근거로 생활의 기반을 닦으려던 초기 노력이 선행한 에버트는 브레멘에 정착, 한 주점을 세내어 경영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방랑생활동안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의 주점은 노동운동의 거점이 되고, 그의 열정적인 활동은 에버트가 곧 노동조합 유급 간부가 되게 하였으며, 1900년 당시 29세의 에버트는 당시 노동운동의 꽃과 같은 역할을 하던 노동자 비서가 된다. 노동자 비서로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접촉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그들의 고통과 근심들은 이후 에버트의 정치 노선에 뚜렷

한 흔적을 남긴다. 매일매일 노동자들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그는 개혁주의 노선을 걷게 되었는데 당 노선을 둘러싼 공방은 그에게 별 관심사가 아니었다. 에버트는 이념논쟁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실현하기를 원했다.

노동귀족인가 개혁주의자인가

에버트는 사회주의 탄압법 폐지이후 독일노동운동 지도부의 전형으로 일컬어진다. 노동운동에 대한 제도적이고 감압적인 탄압이 사라진 이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노동운동 지도층은 결코 비투쟁적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당시까지 이룩한 운동 성과를 지키고 그것을 새로운 활동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자세를 견지했던 바, 복지부동이지는 않으나 단지 먼 훗날을 위한 추상적 계획에 발목이 잡히는 것에는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

었다. 그들에게는 즉흥과 임기응변, 즉 '여기', '오늘', '이 순간' - 노동 투쟁에서, 임금협상에서, 지방의회에서, 세국의회에서 - 최선의 것을 얻어 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사회주의 탄압법 시대의 악몽은 이처럼 사민당을 현실에서 실리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민당 내에서 에버트의 강점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조직과 관련된 전략과 다분히 즉흥성을 가진 전술적 무뇌의 섬세한 혼합). 이러한 강점을 근거로 에버트는 1905년 사민당 의장단 비서가 되며, 베벨이 죽은 후인 1913년에는 공동 의장에 오른다.

엄격히 말하면 에버트는 결코 한 번도 프롤레타리아였던 적이 없으며, 공장노동도 기껏해야 방랑 기간 중 몇 달 동안밖에 해보지 못했다. 그의 생활방식은 차라리 전실한 신분상승에 몰두한 소시민의 것이었다. 게다가 조직 관리와 임기응변을 장기로 하던 에버트가 백만 산업노동자 해방 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물론 여기는 독일 노동운동조직의 관료화와 노동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다.

이데올로기보다 현실

에버트는 베벨이나 다른 개혁주의자들처럼 수정주의 논쟁에서 현실정치를 이데올로기화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물론 그는 운동이 궁극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부르주아지 사회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정치에 추진력과 기댈 곳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궁극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다. 반면 과격한 反 수정주의자들이 에버트가 표방하는 현실정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그대로 방관하려 하지 않았다. '원칙추구'와 '현실정치'는 그에게 불가분의 전제였다.

에버트를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이 취한 양면 전략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냈다. 즉 사민당은 의회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활동하는 야당세력으로서의 길을 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안에서 통치 권력의 한 몫을 차지하려는 노력은 고집스럽게 거부하였다. 그 결과 조직 강화와 선거에서의 약진에는 열성을 기울인 사민당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자신들의 정치적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양면 전략은 하나의 족쇄가 되고 말았다.

물론 이 양면, 즉 혁명적 이데올로

엄격히 말하면 에버트는 결코 한번도 프롤레타리아였던 적이 없으며, 공장노동도 기껏해야 방랑 기간 중 몇 달 동안밖에 해보지 못했다. 그의 생활방식은 차라리 건실한 신분상층에 몰두한 소시민의 것이었다.

기예의 집착과 실천적 개혁직업 전략은 노동자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첫째, 혁명이념 고수는 계급적인 허부 문화를 형성시켜주는데 기여했으며 개혁적인 실제활동은 노동자들을 체제내에 동화되도록 하였다. 이 전략은 바로 자본주의 조건 아래 사회주의 전략을 전개하고 동시에 대중들이 갖는 현실적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양면주의는 세기 전환기에 노동운동의 궁극목표는 포기했으나 혁명이론을 계속 보유하려는 바람은 버리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론은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게 되며 실천은 미래사회를 인도하는 이론적으로 정제된 강령과 같은 지항점 없는 명인 같은 처지에 이르고 말았다. 1900년 이래 에버트의 행적은 어느 정도 이런 궤적을 반영하고 있다.

사민당 우파의 좌장이 되다

1900년 이래 브레멘 노동자비서, 브레멘 시의회위원으로서의 에버트의 활동은 개혁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정치노선은 다른 한편 자유주의 세력의 분과를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이용하려는 전술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계급성에 대한 배반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과 공동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에버트는 지역 사회의 수많은 주요 공직에 앉게 된다. 물론 에버트는 이러한 자신의 노선에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은 아니나, 노동자 계층으로부터의 지지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되는 것은 사실이다.

1913년 베벨이 죽은 후 에버트는 당 우파의 좌장 자격으로 공동의장이 된다. 사회주의에 이르는 민주적 길로서 매일 매일의 일상 정치와 이론 논쟁으로 인한 당의 분열 방지가 에버트를 비롯한 당 지도층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에버트를 비롯한 지도부

는 그때 그때 상황에 적응하면서도 이론과 실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극복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당 내부의 비판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독일 노동자계급의 자발적 행동 능력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추동력을 과대평가했던 반면, 반동적인 집권세력이 해방운동 세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부르주아 사회와 계급국가의 저항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당시 노동운동의 문제는 매일 매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온 운동의 잠재력과 운동이 사실상 이룩한 성과 사이의 불균형이었다. 예를 들어 보통선거권이 수많은 데모를 통해 몇몇 주에서는 관철되었지만 프로이센과 작센에서는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은 노동자계급의 문화적 고립을 적절한 교육, 계몽활동을 통해 수정해야했고 완화시킬 수 있어야 했다. 이처럼 스스로 선택했던 정치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이었다.

전쟁을 지지하다

전쟁 발발은 당시까지 사민당이 가

지고 있던 소극적이고 자기 만족적 자세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전쟁 초기 사민당은 민족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아니면 국제 사회주의와의 연대냐 하는 중대한 선택 앞에 놓이게 되었다. 에버트와 사민당 의원들이 전쟁채권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 그들은 압도적인 다수 노동자들과 같은 편에 서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반(反)러시아 정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방어전으로 이해하였고, 이 기회에 "조국을 모르는 무리들"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사민당이 "진강한 애국심"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이러한 심리 이외에 사민당의 전쟁지지 노선에 따라 독일 사회에 팽배한 반(反)사민당 정서가 사라지고 국내 정치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전쟁 지속과 함께 이러한 희망은 환상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선거권 확대를 비롯한 정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녀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전쟁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를 겪어야 했다. 1918년 10월 패전이 임박했을 때 바로소 정치적 개혁이 시작되었고, 사민당이 내각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에버트

는 사민당의 전시 내각에의 참여를 다음과 같이 정당화했다.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 편안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 민족의 운명이 풍진동화와 같은 순간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민당은 독일 민족 앞에서, 노동자계급 앞에서, 역사 앞에서 결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민당을 정부에 참여시켜 전쟁 말기 동요하는 사회를 안정시켜보고자 했던 정부의 근시안적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에버트를 비롯한 사민당 지도부는 11월 초 대중의 혁명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평의회나 의회나

1918년 11월 병사들과 노동자들의 혁명 후 독일 곳곳에서는 노동자병사 평의회가 조직되었다.



1918년 11월 병사들과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독일 제국은 무너지고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구 체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개혁의 장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 권력의 문턱에 선 그리고 개혁 가능성과 동시에 패전 독일 제국이 남긴 잔해 - 산적한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떠맡게 된 에버트를 비롯한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그들의 과제에 걸맞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초기 급진적 혁명추진세력과 여전히 사회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던 두터운 보수세력 사이에서 인민대표위원 에버트가 가졌던 딜레마는 준비되지 않은 '혁명주체'가 짊어지게 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평화회나 의회나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은 결국 제헌의회 쪽으로 기울고 마는데 에버트는 의회를 통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였던 반면 평화회 지지자들은 추상적 이론에 머문 채 구체적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의 혁명적 상황에서 '의회민주주의' 주장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당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비판은 공허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흐르고 만다. 당시 독일 정치 상황에서 의회민주주의

의는 오늘날 관찰자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매우 진보적인 노선이었으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1919년 뜨거운 혁명 열기 아래 비로소 보통선거가 관철될 수 있었다는 점을 되새겨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들로부터의 신뢰없이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제휴없이 현실 정치에서 사민당이 가진 행동환경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현실을 변혁시키는 실천력 있는 개혁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념에 묶인 장의 투쟁정당으로 머물 것인가? 에버트의 선택은 분명했다.

최초의 공화국 대통령

1919년 2월 11일 에버트는 바이마르에서 의회에 의해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노동자의 아들로서 독일 최초의 대통령이 된 에버트는 어떤 정책을 추구하였는가? 브레멘에서 노동운동가로 출발할 때부터 대통령 재임기까지 에버트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합치시킬 수 있는 문제를 두고 고심해왔다. 노동운동가로서 당 조직가로서 활동하면서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 갈수록 에버트의 생각은 점차 명확한

어는 사민당 간부도 에버트처럼 민주당, 중앙당 그리고 기타 바이마르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정당들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역사가들은 에버트가 대통령직에 취임함과 함께 독일 '의회민주주의'의 초석이 놓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방향을 가지게 된다. 그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선결과제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즉 사회주의는 단지 민주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의 틀이 허용하는 정도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다른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에버트는 오랜 동안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양자의 결합과 실현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이러한 희망을 민주주의 원칙에 양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전환은 특히 전쟁과 11월 혁명 동인에 이루어졌다.

의회민주주의의 출발 이후 에버트에게 사민당의 통일성 유지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정당들과 연립정부 구성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는 이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였다. 다른 어느 사민당 간부도 에버트처럼 민주당, 중앙당 그리고 기타 바이마르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정당들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역사가들은 에버트가 대통령직에 취임함과 함께 독일 '의회민주주의'의 초석이 놓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민당이 오래 전부터 에버트의 지휘 아래 독일 민주화를 위해 구상해왔던,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 동안 사민당의 미래상과 전체적 독일제국 체계 사이에서 타협적인 대안으로 주장해왔던 사항들과 합쳐되는 것이다.

타협의 인간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독일 건설을 위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던 혁명의 순간에도 에버트는 사민당과 독일 사회의 유권자 절대 다수에게 계급 갈등이 새로 격화될 때 치를 희생은 너무 큰 반면 급진과 선동가들이 내거는 목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당시 경제 질서의 혁명적 개조에 대한 포기가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의 실현은 오직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과제라는 본인의 신조를 주지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에버트는 그의 재임기에 민주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의회 정부체제와 함께 관철시키려 노력했다. 민주적이고 사회적이며 의회의 다수와 정당들에 의해 주도되는 법치국가는 에버트의 정치적 목표였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 당시 혼란한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지만 그의 재임기간 동안 의회 민주주의 제도는 독일에서 분명히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정치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써 '의회민주주의'는 다수의 합의에 의존하게되는데 1918년 혁명적 상황의 압박 아래 사민당과의 대타협을 외관상 받아들였던 부르주아 정당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안정과 함께 - 혁명 이전으로의 복귀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독재든지 - 의회민주주의와는 다른 체제를 모색

하게 되면서 에버트와 같은 타협적 인물에 의해 애써 놓여진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 사이의 다리는 안타깝게도 무너지고 만다.

분명 에버트는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찬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며 '노동자의 황제'라고 칭송되던 베켈처럼 탁월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조각가이며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중재자였던 에버트는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다. 에버트에 대한 비난과 오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가 뒤아놓은 독일 의회민주주의의 터전 없이 오늘날까지 이룩된 독일 노동운동의 성과는 생각할 수 없다. ❖